

사랑이 넓은 정원에 장미꽃 피고

# 어느 신여성의 이야기



23세살 때 박필연

“조선에는 허허 남편감이 있어서이지요. 참 큰일 났어요”

“왜 그랬란 말입니까?”

“자~ 드러보지요. 갈만한 데는 조흔을 해버려서 이제 겨우 소년을 면한 사람도 며느리나 사위를 보게 되었지요. 또 잇다고는 젓내니는 어린사람이지요 그 외에 잇다고 해도 인물다운 사람이 잇나요?”

- 조선 중앙일보 1933년 사설 -

1962년 봄 외가가 떠들석 한 적이 있었다. 미국에서 “미국할머니”와 자유진영에서 공산학 최고권위자이자 하버드 교수인 “선우박사”가 미산을 방문한 것이다. 이 미국할머니는 1907년경에 하와이로 “사진결혼”하여 건너간 외증조부 큰 여동생이었고 선우박사는 그녀의 큰사위였었다.

그런데 필자가 이야기 하고 싶은 사람은 미국할머니의 도움으로 당시 극히 드물게 한국여성으로 미국으로 유학간 그녀의 동생 박필연(1902년생)에 대한 이야기 이다.

몇 년전 어머니의 요청에 의해 외가집 정리를 하던중 과수원(옛날 외가집)창고를 뒤지다가 오래된 사진엽서가 있어 그 내용을 보니 1927년 연애 편지였다.

나의 사랑하는 필연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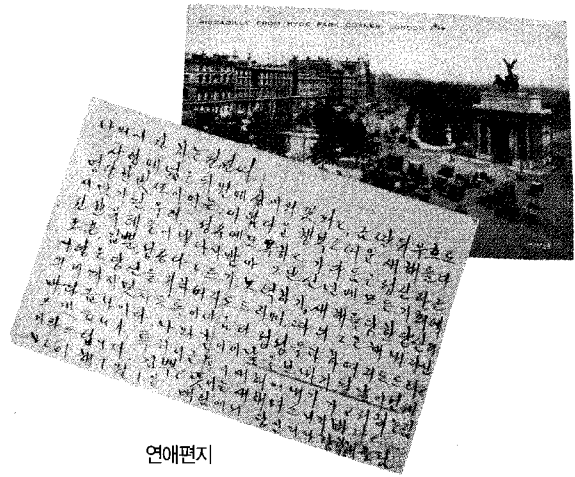
사랑이 넓은 뒷 정원에 장미꽃 피고, 금잔디 위로 명량한 빛이 쬐이는 아름다운 행복스러운 새해를 다시 맞은 우리...

성수(聖水)에 목욕하고 가다듬은 정신과 근전한 육체를 이날 다시 받아 오는 신년에 모든 기회에 좋은 기쁜 성공이 다다르기를 노력하고 새해를 맞은 당신의 사랑을 위하여 기도 드립니다.

그 은혜에 내 자신에게까지 미치도록 이맘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드리고 바라옵나이다. 나와 같이 보내기 될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특히 이 건물이 새해 내가 가고자 하는 집이라 드립니다.

기쁘고 뜻있는 새해 맞으시기를 바라고....

- 4721년 1월 1일 백림(베르린)에서  
당신의 사랑 "학해" 올림 -



연애편지

박필연은 부산일신여학교 출신으로 1919년 마산의신여학교 재직시 "마산민원소 만세운동"에

연류되어 도망하다시피 중구소류를 거쳐 그녀의 언니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로 갔었다.

거기서 샌프란시스코 사범대학을 다니게 되었고 이 시기에 "손학해"라는 한국 청년을 만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던 모양이다.

들리는 집안소문에 의하면 그녀가 학업을 끝내고 고국에 돌아와 대구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갔으나 그에게는 처와 자식이 있었다고 한다.

1931년 그녀는 마산의신여학교 교편을 시작으로 1934년 선교사 보오란과 함께 한국여성실업교육을 위해 "마산복음실수학교"와 1935년 호주선교사 거이덕과 함께 "부산동래여자실수학교"를 설립 운영하다가 1938년 "광견병"에 걸려 세브란스 연합 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에서 36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죽기직전 동료였던 노처녀 "거이덕"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결혼 하세요..."



유품(만년필)



유품(엽서:꽃병채색엽서)